



소변으로 알아보는 건강체크

◆ 소변으로 알아보는 건강체크

1. 소변량



소변량이
지속적으로 지나치게
많거나 적게 나올 경우
신장의 이상신호로

볼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소변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당뇨병이나
요붕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경우
흔히 당뇨병이 발병한
경우가 많으며,

드물게 요붕증이
발병한 경우에도
소변량의 급격한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질환은
소변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만큼

방광에 자주
소변이 차 소변 횟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방광염 등
방광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는 조금이라도 소변이
모이면 바로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소변이 차지 않아도

급히 소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 남자의 경우
소변량은 많지 않으면서
소변 횟수가 잦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등을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2. 거품



소변을 볼 때
약간의 거품이
생기는 것은 정상이며
대개는 1~2일 내에
없어집니다.

하지만
비누를 풀어놓은 듯
거품이 일어나는 경우는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변에서
거품이 생기는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단백뇨를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소변검사를 통해
단백뇨의 존재를 확인
하여야 하며,

이는 만성
사구체신염이 있을 때
흔히 발견됩니다.

또 이 밖에도
요로감염증, 간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색깔



건강한 사람도
심한 운동 후 일시적으로
혈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정상적인
소변 색깔은 물처럼 색깔이
없거나 황갈색입니다.

하지만 소변이
콜라색 또는 분홍색이면
혈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혈뇨는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 요관,
방광, 요도를 거쳐
배설되는 과정 중

어느 부위에서
피가 새어 나온다는
것으로

만성 사구체신염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며
이외 신장, 요로, 방광 등의
염증이나 종양 등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4. 혼탁함



정상적인
소변은 맑고 투명하나
소변 색이 탁하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피곤하면
소변이 탁해질 수 있으며
또 물을 적게 마시거나

땀을 많이 흘려
소변의 농도가 짙어져서
소변 내의 배설 물질이
서로 응고하면 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고기나 야채 등
인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우유, 치즈와 같이
칼슘이 많이 함유된
식품이나 비타민제나
약을 복용한 후에도

소변 색깔이
탁해질 수 있으나
이런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탁한 소변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면
몸의 이상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냄새



정상적인 소변에서
지린내가 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를 톡 쏘는
암모니아 냄새가 날 경우
세균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균에는 소변을
분해해 암모니아를
생성시키는 효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변의 변화〉 이럴 때 질환을 의심하라!		
색	선홍색이나 검붉은색이다	출혈성 방광염, 결석, 종양
	투명해졌다	수분 과다, 요붕증
	탁하고 진하다	요로 감염, 간 이상
	거품이 있다	콩팥 질환, 당뇨, 고혈압
횟수	자다가도 2~3회 일어나 소변을 본다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빈뇨 증상이 심하다	요도염, 전립선염, 과민성 방광, 방광 기능의 약화
통증	배뇨통이 있다	요도염, 방광염 골반 내 염증

우리 벗님들~!
健康조심하시고
親舊들 만나
茶 한잔 (소주 한잔) 나누시는
餘裕롭고 幸福한
나날 되세요~^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